

젠더마커 기준에 따른 한국 성평등 ODA의 특징과 한계

김은경 · 장은하 · 김정수

젠더마커 기준에 따른 한국 성평등 ODA의 특징과 한계*

김은경** · 장은하*** · 김정수****

초 록

젠더마커는 모든 공여국이 OECD DAC에 제출할 때 젠더관련 사업을 보고하는 기제로서, 성평등 ODA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이다. 한국은 주요 시행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도 ODA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ODA를 시행하는 기관이 다양한 가운데,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젠더마커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첫째, 젠더마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젠더마커 기준으로 본 한국 성평등 ODA의 현황, 둘째, 한국의 원조 분야 중 젠더마커로 기입된 성평등 사업의 비중과 세 분야 사업의 9개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젠더마커 1점 및 2점 사업간 내용의 차이점, 셋째, 젠더마커를 기입하는 실무자들의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한국 성평등 ODA 사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며, 젠더마커로 밝혀진 성평등 ODA 사업 특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젠더마커, 성평등, ODA, 직업훈련, 식수 및 위생, 농촌개발

* 이 논문은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로서, 학술적 기여와 확산을 위해 수정·보완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kekkekek@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chchang@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ciel5817@kwdimail.re.kr)

I. 서론

2012년 국제사회에서 ODA 성 주류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2010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기점으로 성 인지적 ODA 시행 및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평등 분야 원조는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젠더마커는 모든 공여국이 OECD에 제출할 때 범분야 이슈 중 젠더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는 기제로서, 이 젠더마커를 기준으로,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평등 ODA 사업이 많고 적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제가 젠더마커인 만큼, 젠더마커에 관련한 해당사업을 표시하여 OECD DAC에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시행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도 ODA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분절화가 보편화되었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젠더마커 기준에 대한 이해가 모두 부족한 가운데, 젠더마커에 대한 기입은 담당 실무자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젠더마커는 무엇이며, 젠더마커로 기입된 성평등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젠더마커를 기입하는 실무자들의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서, 한국 성평등 ODA 사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며, 젠더마커로 밝혀진 성평등 ODA 사업 특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젠더마커(Gender Marker)는 최근 가입한 몇몇 회원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DAC 회원국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 2012-2013년에 젠더마커 양성평등 목표에 회원국들은 총 USD 25.9 billion을 지원하였다. 최근 OECD 젠더넷(GENDERNET) 사무국이 실시한 젠더마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젠더마커의 개념과 적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제공 및 젠더마커 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 2008년 이후에 취약국가에 대한 ODA 지원이 매년 10%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양성평등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DAC 회원국가들이 사용한 예산은 6%에 불과하고, 분야별로 보면 교육과 보건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²⁾

젠더마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해당국가의 ODA 정책이 얼마나 성 주류화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젠더마커 기입 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원조공여국들의 성 주류화 수준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는데, Moser & Moser(2010)는 국제개발협력의 성 주류화 이행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도적 차원과 실제 사업수행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내부책임, 조직문화, 기관 내 저항, 책무성 메커니즘, 젠더 관련 연수의 부족이 실제 사업수행 차원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부족과 여성 참여의 문제가 제약 요소로 제시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ODA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성 인지적 ODA의 시행을 위해 2011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KOICA 성 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을 통해 성 주류화 사업의 수행절차를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는 「성 인지 관점에서의 ODA 사업 평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평가를 실시하였다(김은경 외, 2014). 국무조정실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ODA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ODA의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다(국무조정실, 2015).

1) 참석자들은 젠더마커 개념과 기준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젠더마커 활용을 위해 회원국들의 젠더마커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Peer Review/Independent Study 구성을 GENDERNET 사무국에 제안함.

2) 오주현(2015), 「OECD DAC 양성평등네트워크 제13차 회의」,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1315&seqno=1145228&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 2016. 9. 12.)

이 논문은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어오지 않았던 젠더마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에서 성평등 ODA 사업이 어떻게 집계되는지에 대한 절차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와 함께, 그러한 사업들을 성평등 사업으로 분류했던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같은 연구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ODA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2. OECD 젠더마커 분석

가. OECD 젠더마커 정의와 검토절차

젠더마커란 OCE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활동을 기록하는 통계도구로서 공식 명칭은 성평등 정책마커(gender equality policy marker)이다.³⁾ 보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및 여성권한부여를 촉진시키거나 성 불평등과 차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개발원조 활동에 대해 부여되는 값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권을 외, 2009: 124). 젠더마커로 기록되는 원조사업에는 a) 여성과 남성 및 여아와 남아 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의 혜택이 남녀에게 골고루 돌아가며,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업, 또는 b) 성평등을 강화하고 비차별 정책, 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업이 해당된다(OECD DAC, 2013: 36).

OECD DAC는 회원국들의 원조 동향을 파악하는 ‘통계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에 젠더마커 기입절차를 포함시켜 매년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 CRS에 보고되는 젠더마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2점, 1점, 0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일 경우 젠더마커 0점이 주어지고,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경우 그 관련 정도에 따라 젠더마커 2점과 1점이 구분되어 부여된다.⁴⁾ 성평등 달성이 원조 사업의 명백한 목표이거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3) OECD 웹사이트.

<http://www.oecd.org/dac/gender-development/dac-gender-equality-marker.htm>(2015. 11. 25 접속)

4) 젠더마커에서 의미하는 0점, 1점, 2점은 점수가 아니며 통계적 구분을 위해서 사용된 단순한 통계값이다.

일 때, “성평등 주요 목적(Principal objective) 사업” 또는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분류된다. 성평등 달성이 원조 사업의 주요 목적이 아니지만, 동 사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이 통합되어 성평등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성평등 중요 목적(Significant Object) 사업” 또는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분류된다(GIZ, 2014: 4-5).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젠더마커 2점 사업과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농부가 여성인 특정 지역에서 여성들의 농업기술접근 향상을 위해 대규모의 여성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 사업은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에서 수확량 증대를 목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장(women-headed household)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구성 요소들과 함께 여성들이 농약과 비료를 살 수 있도록 여성 대출프로그램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이 사업은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OECD DAC, 2013: 36). 또한, 젠더마커 기입관련 주목할 점은 남성과 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그 목적이 성평등에 있으면 젠더마커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OECD DAC 회원국은 자국의 ODA 통계를 CRS 시트(sheet)로 제출하며 여기에는 원조 프로젝트 기본 정보, 양·다자 지원 규모, 유·무상 원조 규모, 프로젝트 설명 및 젠더마커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회원국의 담당자가 완성된 CRS 엑셀 시트를 OECD로 송부하면, OECD는 이 자료의 코딩이 OECD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기입된 마커 기입의 정확도나 적절성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즉 특정 사업에 대한 해당 젠더마커의 부여가 적절한지, 오류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국내 원조기관의 통계를 취합하여 CRS를 작성하며, OECD 한국대표부에서 OECD로 CRS의 최종본을 송부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DAC 회원국이 개도국의 성평등 관련 조직이나 제도를 지원하는 경우 CRS 코드의 대분류인 “정부와 시민사회(Government and Civil Society)”의 하위 항목에 별도로 위치한 “성평등 조직 및 제도에

대한 지원”의 코드를 부여 받게 된다. 이를 통해 DAC 회원국의 개도국 여성부 혹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 항목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자동적으로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2017년 통계 보고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Ending Violence against Women)”이 별도의 CRS 코드(15180)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도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젠더 마커와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젠더마커를 통해서 OECD DAC 각 회원국의 양성평등 분야 원조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회원국의 원조공약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gap)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평등 원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공여국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⁵⁾

OECD DAC는 매년 각 회원국의 젠더마커 평가율(gender marker coverage ratio)과 성평등 원조율(gender equality-focused aid)을 성평등 ODA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⁶⁾ 젠더마커 평가율은 전체 개발원조 예산 중 젠더마커로 평가한 원조활동 예산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성평등 원조율은 젠더마커로 평가한(screened) 활동 중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한 원조활동의 비율이다. 젠더마커는 원칙적으로는 행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양자 원조가 대상이 되고, 섹터 할당(sector allocable)원조와 섹터 비할당(non sector allocable) 원조가 모두 해당된다. 또한 젠더마커는 프로젝트(projects),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원조에 적용이 된다(OECD 2013 : 35).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OECD DAC 사무국에서 발간한 성평등원조 보고서의 국별 분석에서는 섹터 비할당(non sector allocable aid) 원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OECD, 2015: 5)⁷⁾ 모든 사업이 젠더마커로

5) OECD 웹사이트.

<http://www.oecd.org/dac/gender-development/dac-gender-equality-marker.htm> (접속일 2015. 11. 25)

6) OECD DAC 사무국에서는“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Donor Charts”라는 제목으로 2011년부터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평가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체 원조 예산이 아니라 젠더마커로 평가한 활동의 예산만을 전체로 보고, 이 중 젠더마커 1번 혹은 2번을 부여받은 활동의 예산 비율을 계산한다(권율 외, 2009: 126). 또한 젠더마커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제시된 공여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 목표에 의거하여 부여하며, 실질 예산 집행내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⁸⁾

이러한 이유로 젠더마커는 공여국의 성평등 원조 상황을 나타내는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최선의 추정값(best estimate)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산출방법에 의하면 젠더마커 1점 사업은 사업 내 소규모의 액수만 성평등 원조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총액이 모두 1점 사업으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실제 성평등관련 원조액수 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 성평등 원조액은 2점사업의 총액과 2점 사업과 1점사업의 합산액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OECD, 2012: 2). 예를 들면, 사업규모가 각각 1만불인 젠더마커 2점 사업과 사업규모가 동일하게 1만 불이지만 이 중 성평등 원조액수는 2천불인 젠더마커 1점 사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국가의 실제 성평등 원조 총액은 1만 2천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젠더마커 집계방식으로는 2만불로 집계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성평등 원조 총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며, 상기 언급한 방식을 통해 최선의 추정 값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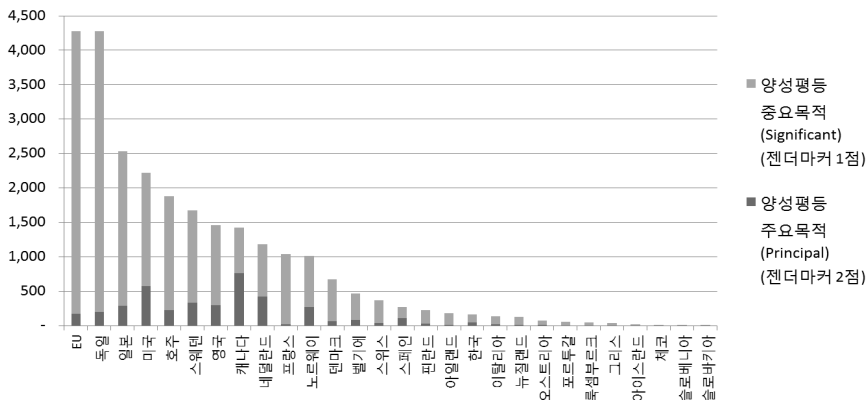
[그림 1]은 OECD DAC 공여국의 성평등 분야 원조액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젠더마커 2점과 1점 사업을 모두 더한 절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현재, EU와 독일이 성평등 원조의 총액에 있어서 약 4,300백만 불을 기록하며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선진 공여국들이 뒤를 잇고 있다. 이 국가들은 주로 젠더마커 1점 사업 비중이 높은데, 이 국가에서는 원조사업의 각 분야에 있어서 성주류화가 잘 정착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젠더마커 2점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고, 1점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좋은

7) OECD DAC 사무국 발간 성평등 원조 보고서 내 국별 분석의 각주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섹터 비할당(non sector allocated aid)에는 프로그램 원조(예산지원 등), 채무 구제(debt relief), 긴급구호(emergency aid) 등이 포함된다.(OECD, 2015: 5)

8) OECD 통계 웹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ENDER> (접속일 2015. 12. 1)

성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두 값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⁹⁾ 캐나다의 경우, 젠더마커 2점 원조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크고, 젠더마커 2점 사업과 1점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OECD (2015).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Donor Charts, p. 4 자료 재구성; 김은경 외 2015. p. 21에서 재인용.

[그림 1] DAC 회원국별 성평등 분야 원조액(2012-2013년) (단위: 백만불)

3.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 사례분석

가. 젠더마커 분류에 따른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 일반현황

OECD DAC 회원국의 원조액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평균비율이 30%인 가운데, 한국은 2012년 7%, 2013년 10%로,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15: 20).¹⁰⁾ 젠더마커 2점 사업은 2012년 28백만불, 2013년 73백만 불로 한해동안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45백만불), 젠더마커 1점 사업은 2012년 89백만불, 2013년 134백만불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OECD, 2015: 20).

OECD DAC의 집계는 원조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확히 몇 개의

9) OECD 본부 통계사무국 관계자 면담 내용. (2015년 7월 실시)

10) 2012-2013년도 평균으로 볼 때 한국은 9%로 나타났으며, 29개 국가중 27위임. 28위는 슬로베니아(8%), 29위는 집계되지 않은 폴란드임.

사업이 성평등 원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는다. 즉 예산이 큰 한두 사업에 젠더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성평등 원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서, 사업 수로 비율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성평등 원조사업을 수로 다시 계산하여 보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원조 사업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ODA 사업 중 성 평등 ODA 사업 수는 2013년 14개, 2014년 25개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젠더마커 2점 사업은 2013년 9개, 2014년 11개, 젠더마커 1점 사업은 2013년 5개, 2014년 14개를 차지하였다. 2015년에는 성평등 원조 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 178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 수 대비 6.99%를 차지하였다. 2015년 178개 사업 중 젠더마커 2점 사업은 52개, 젠더마커 1점 사업은 126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표 1〉 한국의 성 평등 ODA 현황

단위: 사업 수(%)

	성평등 ODA			젠더마커 0 점	미분류 (비특정 분야)	합계
	전체 (a+b)	주요 목적 (Principal, 젠더마커 2점)(a)	중요 목적 (Significant, 젠더마커 1점)(b)			
2015년(4월)*	178 (6.99)	52 (2.04)	126 (4.95)	2219 (87.09)	151 (5.93)	2548 (100.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 모니터링 시스템¹²⁾, <http://oda.edcfkorea.go.kr/> (접속일: 2015.11.23.); 김은경 외(2015), p.24에서 재인용.

* ODA 사업 정보는 보고 당시 기준 당해연도 진행 중 또는 진행예정인 ODA 사업을 대상으로 함.

2015년 4월 기준 한국의 성 평등 ODA 사업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46.1%), 아프리카(34.3%), 아메리카(16.9%), 지역 미배분(1.7%), 오세아니아(1.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 평등을 주요 목적(젠더

11) 한국수출입은행 ODA 모니터링 시스템, <http://oda.edcfkorea.go.kr/> (접속일 2015.11.23)

12) 한국수출입은행 ODA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부처 및 시행기관 간 ODA 사업정보 공유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당해연도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인 ODA 사업을 보고 대상으로 함. 당해연도에 입력된 모니터링 정보는 다음 해 DAC 통계보고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고 있음.

마커 2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아프리카(42.3%), 아시아(36.5%), 아메리카(15.4%), 지역 미배분(3.8%), 오세아니아(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 평등을 중요 목적(젠더마커 1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아시아(50.0%), 아프리카(31.0%), 아메리카(17.5%), 오세아니아(0.8%), 지역 미배분(0.8%)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의 성 평등 ODA 원조사업 실행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이 총 163개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총 6개, 여성가족부가 3개, 보건복지부 2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경기도청, 국립국제교육원이 각각 1개의 성평등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분야별 특성과 젠더요소

2015년 4월 기준 한국의 성평등 ODA를 사업 별로 분류하면, 교육(33.1%), 보건(23.0%), 농업·어업(14.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8.4%),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7.9%), 식수공급 및 위생(6.7%), 다부문(환경, 농촌개발 등)(4.5%), 금융 및 재무서비스(1.1%),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³⁾ 젠더마커 2점 사업의 경우, 교육(28.8%), 보건(25.0%),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13.5%),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3.5%), 농업·어업(9.6%), 금융 및 재무서비스(3.8%), 다부문(환경 등)(3.8%), 식수공급 및 위생(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젠더마커 1점 사업의 경우, 교육(34.9%), 보건(22.2%), 농업·어업(15.9%), 식수공급 및 위생(8.7%),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6.3%),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5.6%), 다부문(환경 등)(4.8%),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성평등 ODA 원조사업의 분야별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의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는 직업훈련 센터 뿐 아니라, 시범학교 설립, 교육인재 양성, 교사교육,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 리더

13) 2013년, 2014년의 경우 매우 낮은 성평등 ODA비율을 기록하여, 분야별 분류하기 부적합하다고 여겨져 2015년 자료만을 분류하여 작성하였음.

십 강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주로 한국국제협력단, 여성가족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교육 분야의 성평등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보건분야의 경우 모자보건 사업과 의료인력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이 젠더마커 2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는 의료체계 강화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질병관리 사업, 영양개선사업, 학교급식 사업,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분야의 경우 총 17건의 사업 중 14건이 성평등 원조로 분류됨으로써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는 에이즈 감염 여성 지원, 생식보건 캠페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성건강 증진 사업 등이 있으며,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는 모자보건 사업,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보건 분야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향후 보다 명확한 분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에서는 식수개발 사업, 위생환경 개선사업, 정수처리시설 사업, 식수위생 환경개선 사업, 수자원이용 사업 등이 포함된다. 개도국에서는 여성이 식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생분야 또한 여성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분야임을 고려할 때, 젠더마커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젠더마커로 체크된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성평등 원조로 분류되지 않은 식수공급 및 위생 사업 중에서 적어도 젠더마커 1점 사업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 성주류화를 위한 역량강화,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등이 주로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는 헌법재판기관 초청사업, 교통전산화사업, 치안강화 사업, 의정활동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에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헌법재판연구원, 경기도청 등 다양한 실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임업·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주도 하에 농촌여성 경제력 향상 사업, 새마을 운동, 적정기술 보급, 수산양식 사업, 관개수로 사업, 빈곤퇴치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 및 재무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여성대상 소액대출사업이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 아동가족 지원 사업과, 통계 역량강화 사업이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대부분 (환경, 농촌개발 등)에 있어서는 극빈농촌여성 자립역량강화, 석사학위 프로그램 이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사업, 재해 경감 사업 등이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2〉 한국의 성 평등 ODA 현황: 분야별 (2015년 4월 기준)

단위: 개, %

사업분야	주요 목적 (Principal, 젠더마커 2점) [a]		중요 목적 (Significant, 젠더마커 1점) [b]		성 평등 ODA [a+b]		전체 ODA 사업[c]		분야 별 성 평등 ODA [a+b/c]
	사업수	비율 (%)	사업수	비율 (%)	사업수	비율 (%)	사업수	비율 (%)	비율 (%)
교육	15	28.8	44	34.9	59	33.1	396	15.5	14.9
보건	13	25.0	28	22.2	41	23.0	256	10.0	16.0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7	13.5	7	5.6	14	7.9	17	0.7	82.4
식수공급 및 위생	1	1.9	11	8.7	12	6.7	104	4.1	11.5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7	13.5	8	6.3	15	8.4	407	16.0	3.7
농업·어업·임업	5	9.6	20	15.9	25	14.0	408	16.0	6.1
금융 및 재무서비스	2	3.8	0	0.0	2	1.1	8	0.3	25.0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0	0.0	2	1.6	2	1.1	92	3.6	2.2
다부문 (환경, 농촌개발 등)	2	3.8	6	4.8	8	4.5	179	7.0	4.5
그 외	-	-	-	-	-	-	681	26.7	-
합 계	52	100.0	126	100.0	178	100.0	2548	100.0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 모니터링 시스템, <http://oda.edcfkorea.go.kr/> (접속일: 2015.09.15.); 김은경 외(2015), p.27에서 재인용.

다. 성평등 ODA 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

위에서 살펴본 젠더마커 사업들 가운데, 직업훈련, 식수/위생, 농촌개발 세 분야의 사업사례를 대상으로 젠더마커 1점, 2점간 사업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농촌개발은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생활 환경 인프라 개선, 교육 및 보건 분야 사업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며, 교육분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훈련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식수/위생 사업은 학교 등 공공부문과 가정의 사적부문에 모두 해당하는 보건위생과 식수공급의 주요 담당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세가지 사업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직업훈련사업이다. 볼리비아 씨빼씨빼 지역 청년을 위한 IT 교육 및 직업기술학원 운영사업(2012-2014)과,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2014-2017)은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볼리비아 사업은 사업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후자 사업은 사업대상에 여성이 특정하게 포함되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 두 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산출물에 여성이나 젠더 요소가 특별히 부각되어 나타나있지 않았다. 두 사업의 공통된 내용이라면, 사업내용에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훈련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전자의 경우 재봉, 재빨, 농업기술,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후자에서는 봉제,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후자 사업에 대한 실시협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컴퓨터 공과를 비롯하여 여성취업이 용이한 방직 및 봉제 공과를 운영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관련 산업으로 취업하여 소득향상을 통한 여성지위 향상 및 성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 있어(KOICA, 2015a: 52), 이 사업이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기록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이 목화 등 농산품이 많이 생산되는 대규모 농업지역으로서, 대규모 직물 및 섬유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실업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봉제 관련 분야의 자영업과 취업이 매우 유망한 분야이므로 젠더 측면에서 공과설립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KOICA, 2015a: 75).

한편, 같은 직업훈련 분야의 젠더마커 2점 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2013-2016)은 젠더마커 2점사업이지만 사업대상에서 여성과 남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실시협의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사업목적, 사업내용, 커리큘럼, 산출물 등에서 앞서 살펴본 볼리비아 사업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젠더마커 2점사업이라면 사업을 통해 성평등을 달성하거나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젠더마커 1점 사업보다는 좀더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어야 하지만, 젠더마커 1점 사업의 사업개요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업의 주요 훈련공과가 전기제어, 자동차정비, 용접배관, 그리고 컴퓨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 공과를 놓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 취업할 경우 여성지위 향상 및 성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젠더마커 1점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시 사업과 유사한 커리큘럼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식수 및 위생사업으로 볼리비아 사빠하끼지역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사업(2012-2015), 세네갈 식수개발사업(2010-2014),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2015-2018) 세 개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세 개 사업은 모두 젠더마커 1점 사업인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가구나 마을 단위로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목적은 영유아 사망률 및 수인성 질병 감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제공, 위생시설 이용 향상, 위생습관에 대한 실천 강화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내용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위생환경 개선, 통합 식수 공급시스템 구축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과, 식수위원회 조직 및 교육활동, 올바른 위생습관 전파 같은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현장견학 등의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산출물은, 목표한 학교에 대한 학교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식수공급시설 구축, 수중펌프 및 발전기 설치, 급수관 설치, 지역통합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은 식수/위생 사업의 성과지표에 젠더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세네갈 식수개발사업(2010-2014)의 경우, 식수보급률 향상, 보건 환경 향상 등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사업 전후 식수확보 절감시간 및 가사노동시간 절감)가 하나의 지표로 포함되어, 본 사업이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및 아동의 교육기회 부여를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업의 종료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 시행 전에는 지역 여성 및 아동들이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1회 왕복 평균 4시간, 1일 2회)을 소비해야 했고, 가사/노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이나 교육의 기회는 적을 수밖에 없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시간이 5분 이내로 개선되었고, 지역 여성과 아동들에게 사회활동 증대 및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이다(KOICA·동부엔지니어링, 2015: 10-13). 안정적인 식수의 공급은 식수 확보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녀자들이 잉여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관개시설 구축은 잉여시간을 농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며, 양파, 감

자, 피망 등 밭작물 재배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이같은 작물 생산을 통해 자급자족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ICA·동부 엔지니어링, 2015: 10-13).

또한 볼리비아 사빠하끼지역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결과보고집에 따르면, 사업수행에서 여성의 참여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식수위생습관 훈련 참가자에 여성비율이 50%, 식수위원회 여성회원 비율이 40%에 이르렀음이 보고되었다. 다만 이 사업에 여성이 다수 참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건축작업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화장실, 샤워시설 건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학교에 샤워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여학생들이 목욕 때문에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5: 376).

식수/위생분야에서 살펴본 세가지 사례는 모두 젠더마커 1점사업이었으며, 사업수행의 구성요소나 성과지표에 각각 젠더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식수/위생분야 사업은 여성 여아의 생활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식수공급에 들이는 시간을 사회활동 참여로 활용할 수 있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에서는 베트남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사업(2014-2017), DR콩고 키치니 농촌종합개발사업(2013-2017),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2019)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네팔 사업은 젠더마커 2점사업이었다. 먼저 젠더마커 1점인 베트남 사업과 DR콩고 사업을 살펴보면, 베트남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에 여성이 명시된 가운데 사업목적에서도 소수민족과 여성의 빈곤감소가 드러나 있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가 공통요소로 포함된 가운데, 베트남 사업의 경우 기초모자보건 역량강화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 기초모자보건 역량강화는 모자보건 의료인력 역량강화(KOICA Q-Health 모델¹⁴⁾)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단위 1차보건요원의 역량 강화와 마을단위 여성자조운동 활성화를 주요 내용

14) 각 레벨의 의사, 간호사, 기사 등 전문인력훈련(근무 중 훈련(OJT), 하노이 파견, 한국 파견 등), 병원 경영 등 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훈련, 한국 의료진 현지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 모자보건요원을 주축으로 하여 ‘베트남여성연맹’ 산하 마을 단위 ‘어머니 클럽’(Mother Club) 조직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KOICA, 2014: 95). 라오까이성은 다수의 소수민족거주지로 북부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지리적 고립과 함께 조혼, 영양부족, 보건 서비스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서(KOICA, 2014: 94), 이같은 사업내용의 구성은 지역개발 뿐 아니라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DR콩고 키치니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카사바 제분가공시설을 설치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주식인 카사바의 건조 및 분쇄 등 조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력 절감에 상당부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았다. 이 마을 뿐만 아니라 DR콩고 농촌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작업의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어 조리 시간을 절감할 경우 농업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KOICA, 2012: iii).

젠더마커 2점 사업인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2019)은 사업대상이 너왈퍼라시 지역주민, 사업목적은 지역의 통합적 지역개발(교육, 보건, 식수, 농촌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식수를 위한 급수시설 및 화장실 지원,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단위로 여성그룹과 학교 교사 및 지역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이 있다. 이 사업의 산출물은 교육분야에 7개 지역 학교시설 개선과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신설, 보건분야에서 보건소 인프라 개선 및 보건인식 개선, 식수분야에서 식수 수질개선 등이다. 이 사업지역은 청장년 남성 중 상당수가 해외취업이나 도시로 취업해 나갔기 때문에 인구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여성들은 가사일 외에 농사일도 담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비위생적 상태로 생활하여 각종 감염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화장실 부재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전통적인 부엌 형태로 연기가 많이 나는 화덕에서 장시간 요리를 함으로써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에도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이 1칸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여학생들은 생리기간 중 결석율이 높았고,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요인에도 화장실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지역을 대상으

로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교육, 보건, 식수 분야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사업의 본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사업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거나 여성의 역량강화가 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업대상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상 여성주민이 많고, 교육, 보건이나 식수 시설 개선이 여학생과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 보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젠더마커 사업의 9개 사례를 살펴볼 때, 같은 분야의 동일한 젠더마커 사업이라 해도 젠더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직업훈련 분야 사례에서처럼 젠더마커 1점 사업과 2점사업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사업도 있었다. 또한 사업대상에 여성이 있을 뿐, 사업내용과 사업목적에서 젠더요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업도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업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이나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젠더마커 사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젠더마커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 수준 분석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젠더마커에 기입된 동일한 분야의 사업 간에도 사업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고, 젠더마커 1점과 2점 사업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젠더마커는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 것이니 만큼, 젠더마커를 기입해야 하는 시행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의 젠더와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정도와 이해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사업에 부여되는 젠더마커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담당자가 젠더의 개념이나 젠더사업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젠더마커로 기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기입하고 있을 수 있다.

이 4장에서는 먼저 이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ODA 사업 관계자들의 젠더마커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지도와 경험수준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¹⁵⁾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는 젠더마커에 대한 양성평등

ODA 관련 용어 및 지식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항 중에서 젠더마커 관련 용어에 대한 3개 세부문항의 응답 결과를 정리하고, 관련 심층면접의 구술 결과를 덧붙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 ODA 사업의 장애요소 및 확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젠더마커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소속기관을 유무상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과 기타 시행기관¹⁶⁾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¹⁷⁾

15) 본 논문에서는 젠더마커 기준에 따른 한국 성평등 ODA의 특징과 한계라는 본 논문의 취지를 살려 이 논문의 공간이 된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서울: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젠더마커 비율이 낮은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DA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젠더에 대한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는 2015년 9월~10월 약 한달 간, 국무조정실 및 ODA 주관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과 시행기관(KOICA, EDCF 및 기타 시행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99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의 항목은 기본적인 응답자 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1) 양성평등 ODA 사업 관련 경험, 2) 양성평등 ODA 관련 용어 및 지식에 대한 이해, 3) 양성평등 ODA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 양성평등 ODA 현황 및 장애요소, 5)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항목에 따라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접은 집단면담(FGI)의 형태로 대표적인 유무상 ODA 시행기관인 KOICA 관계자 5인, EDCF 실무자 4인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0일과 2015년 11월 6일에 각각 이루어졌다. 질문내용은 ODA 사업 수행 시 젠더요소를 사업에 반영했던 경험, ODA 사업 및 정책의 기획시 젠더요소 고려에 대한 장애요소, 여성대상 혹은 성 주류화 ODA 사업 수행의 장애요소, 젠더마커 1점 사업과 젠더마커 2점 사업의 상대적 실행가능성,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의 비교, 젠더마커 기입이 어렵거나 쉬운 이유, 양성평등 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소속기관의 양성평등 ODA를 위한 노력 정도와 이유로 반 구조화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16)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2조 8항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로 정의되고 있으며, 무상원조 대표 시행기관인 KOICA와 유상원조 대표 시행기관인 EDCF를 제외한 기타 시행기관으로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국민안전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17) 응답자의 남녀 성비는 비교적 균등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의 응답자가 50% 이상이고, 20대 응답자가 24.1%, 40대 이상의 응답자가 23.6%를 차지하였다. 경력과 관련해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33.2%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응답자가 33.2%,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21.6%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1년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실무자급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33.7%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가. 젠더마커 대한 관계자들의 인지도와 경험수준

양성평등 ODA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범분야 이슈, 젠더, 성주류화와 같은 용어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젠더마커를 실질적으로 기입하는 데 필요한 젠더마커 0, 1, 2점 간 구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과 경력이 많은 응답자, 그리고 ODA 주관기관보다는 ODA 시행기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 젠더마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및 난이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OECD 젠더마커에 대해 약 50.8%의 응답자가 약간 혹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젠더마커를 구분해 입력하는 데 필요한 지식(0점, 1점, 2점 간 차이)과 관련해서는, 약간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반의 응답자인 59.8%의 응답자가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젠더마커에 대해 남성 49.4%, 여성 51.8%, 젠더마커 0,1,2점 간 차이에 대해서는 남성 25.9%, 여성 30.9%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 구분을 보면, 젠더마커에 대해 3년 미만 경력자의 42.2%, 3년 이상 경력자의 6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젠더마커 0,1,2점 간 차이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3년 미만 경력자 22%, 3년 이상 경력자 36.7%로 나타나, 성별에 기인한 차이보다는 경력에 따라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외교부, 기획재정부)과 시행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젠더마커에 대해 시행기관 49.7%,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 62.5%로 정책기획부처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젠더마커 0, 1, 2점 간 차이에 있어서는 시행기관 30%,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 12.5%로, 시행기관에서 젠더마커의 구간 간 차이를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시행기관은 실제로 CRS 원조 목적 코드 등을 기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러한 점수구분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9%에 이르고 있는 점이 발견되어, 상당수 정책 실무자들이

젠더마커를 제대로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¹⁸⁾ 또한 젠더이슈를 떠나 CRS 원조목적 코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과반수 정도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ODA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OECD 젠더마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n=199)

		전체 (n=199)	성별		경력별		기관별	
			남 (n=89)	여 (n=110)	3년 미만 (n=109)	3년 이상 (n=90)	시행기관* (n=183)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 (n=16)
OECD 젠더마커	전혀 들어 본 적 없다	18.1	20.2	16.4	25.7	8.9	18.6	12.5
	들어 봤으나 잘 모른다	14.6	16.9	12.7	16.5	12.2	14.2	18.8
	들어 본 적이 있다	16.6	13.5	19.1	15.6	17.8	17.5	6.3
	들어 봤으며 약간 알고 있다	26.1	28.1	24.5	20.2	33.3	25.1	37.5
	매우 잘 알고 있다	24.6	21.3	27.3	22.0	27.8	24.6	2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젠더마커 0, 1, 2점 간 차이	전혀 들어 본 적 없다	32.2	34.8	30.0	39.4	23.3	30.6	50.0
	들어 봤으나 잘 모른다	27.6	25.8	29.1	30.3	24.4	28.4	18.8
	들어 본 적이 있다	11.6	13.5	10.0	8.3	15.6	10.9	18.8
	들어 봤으며 약간 알고 있다	13.1	13.5	12.7	9.2	17.8	14.2	0.0
	매우 잘 알고 있다	15.6	12.4	18.2	12.8	18.9	15.8	1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2조 8항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로 정의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9조에 따라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를 지칭함.
출처 : 김은경 외 (2015), p. 44에서 재구성.

18) 일반적인 CRS 원조목적 코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67.3%가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3년이상 경력자의 경우 78.8%로 나타나고 있어, 경력이 많은 응답자일 경우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전체 199명 응답자 중에서 실제로 젠더마커를 입력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18.6%에 불과하였고, 젠더마커 기입 유경험자 37명 중 젠더마커에 대해 매우 혹은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9.5%로 과반수의 유경험자가 젠더마커 입력 경험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젠더마커를 입력할 때,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77.1%의 응답자가 실제 사업내용이 젠더마커 몇 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젠더마커의 신중한 기입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4.3%, 젠더마커 점수 간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다(김은경 외, 2015: 44-45).

실제로 유·무상 대표 ODA 시행기관인 KOICA와 EDCF 면담에서 젠더마커와 관련해, 그 판단이 어려워 충분히 젠더마커 1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젠더마커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디폴트값인 '0'으로 입력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ODA의 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ODA 주요시행기관의 실무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젠더마커 기입 시 제대로 1, 2를 기입하면 [기존 수치]보다 더 많이 나올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KOICA 2), 따라서 인식제고(awareness)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젠더 관련 사업을 해 놓고도 체크 못하는 실무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떤 기관의 'OO 상수도 사업'을 평가했는데, 지표 중 하나가 여성들이 물 길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젠더마커 1점 정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젠더마커 0점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EDCF 2). 따라서 젠더마커의 기입을 장려하고, 그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젠더전문가의 지원 등 젠더마커의 판단을 위한 전문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이 시사되고 있었다.

성평등 이슈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남성의 61.8%, 여성의 71.4%, 3년 미만 경력자의 59.6%, 3년 이상 경력자의 82.3%가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젠더마커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길어질수록 성평등 이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관별

로 봤을 때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37.6%)보다는 ODA 시행부처 및 기관(66.1%)에서 성평등 이슈가 반영되어야 한데 인식을 같이했다(김은경 외, 2015: 46).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가는 주관기관의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향후 ODA 정책에 젠더이슈가 제도화 될 수 있는 여지는 다소 희박해보이긴 하나, 경력이 많아지거나 시행기관 차원에서 인식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기획 부처가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성평등 ODA 사업의 장애요소 및 확대에 대한 인식

성평등 ODA 사업의 장애요소로는 실무자들이 맡고 있는 사업과 성평등 이슈를 연결하는 부분이었다. 성별에 따른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협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여성의 경우, 시간적 여유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요소로 파악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실무자급 응답자들의 경우, 지식과 전문가의 부재, 즉,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장애요소로 많이 응답한 반면,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경우, 시간적 여유 부족 문제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ODA 시행기관에서는 절차상의 복잡성 문제가,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의 경우 협의할 전문가의 부재가 더 많은 응답자에 의해 장애요소로 응답되었다. 그 외에도 정량화된 성과평가의 압박과 개도국 현지의 양성평등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 개도국 현지의 사회구조적 제약요소 등이 장애요소로 언급되었다.

〈표 4〉 양성평등 ODA 사업의 장애요소

단위 : % (n=199)

		전체 (n=199)	성별		직급별		기관별	
			남 (n=89)	여 (n=110)	실무자급 (n=132)	중간관리 자급 이상 (n=67)	시행기관* (n=183)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 (n=16)
절차 상의 복잡성 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	9.0	6.7	10.9	9.1	9.0	9.3	6.3
	별로 그렇지 않다	22.1	23.6	20.9	18.9	28.4	24.0	0.0
	보통이다	36.7	39.3	34.5	41.7	26.9	35.0	56.3
	약간 그렇다	25.1	21.3	28.2	22.7	29.9	24.6	31.3
	매우 그렇다	7.0	9.0	5.5	7.6	6.0	7.1	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간적 여유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8.0	9.0	7.3	8.3	7.5	8.2	6.3
	별로 그렇지 않다	18.6	19.1	18.2	15.2	25.4	18.6	18.8
	보통이다	42.7	44.9	40.9	44.7	38.8	42.1	50.0
	약간 그렇다	23.1	20.2	25.5	25.0	19.4	23.0	25.0
	매우 그렇다	7.5	6.7	8.2	6.8	9.0	8.2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성평등 이슈 반영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전혀 그렇지 않다	7.5	5.6	9.1	7.6	7.5	7.7	6.3
	별로 그렇지 않다	25.6	23.6	27.3	18.9	38.8	26.8	12.5
	보통이다	35.7	41.6	30.9	37.9	31.3	34.4	50.0
	약간 그렇다	25.6	22.5	28.2	30.3	16.4	25.1	31.3
	매우 그렇다	5.5	6.7	4.5	5.3	6.0	6.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협의할 전문가의 부재	전혀 그렇지 않다	12.6	12.4	12.7	10.6	16.4	13.1	6.3
	별로 그렇지 않다	28.1	25.8	30.0	22.7	38.8	27.9	31.3
	보통이다	30.2	31.5	29.1	34.1	22.4	31.1	18.8
	약간 그렇다	22.6	22.5	22.7	24.2	19.4	21.9	31.3
	매우 그렇다	6.5	7.9	5.5	8.3	3.0	6.0	1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위급의 반대 예상	전혀 그렇지 않다	16.6	16.9	16.4	17.4	14.9	16.9	12.5
	별로 그렇지 않다	32.7	39.3	27.3	27.3	43.3	32.2	37.5
	보통이다	33.2	30.3	35.5	35.6	28.4	33.9	25.0
	약간 그렇다	15.1	12.4	17.3	16.7	11.9	14.2	25.0
	매우 그렇다	2.5	1.1	3.6	3.0	1.5	2.7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김은경 외 (2015), pp. 53-54에서 재구성.

전체 응답자의 과반 정도가 성평등 ODA와 관련된 강의 및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관별로 격차가 크고, 기관 내 양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면담(FGI)의 면담자들은 성평등 ODA의 확대를 위해 성평등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기관 내부에 젠더전문관 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요소와 관련, 연수 등을 통한 역량강화와 제도적 기반마련이 전체 응답자에게 각각 1, 2위로 응답되었다. 기관별로는 EDCF(66.7%)와 기타 시행기관(51.4%)의 경우, 연수 등을 통한 역량강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관 내 성평등 전문가를 두기 힘든 상황 속에서 관계자들의 양성평등 인식 및 역량 제고를 통해 성평등 ODA 확대가 실현 가능하리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는데, 실무자와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응답자 38.8%가 ‘제도적 기반마련’에 응답율을 보이는 한편, 실무자급 응답자들 38.6%는 연수 등을 통한 역량강화에 더 큰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양성평등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차원의 필요요소 (중복응답)

단위 : % (n=199)

	전체	성별		수행기관별				직급별	
		남	여	KOICA	EDCF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기타 시행 기관 **	실무자급	중간관리자 급 이상
양성평등 역량 강화 기회	35.7	37.1	34.5	27.1	66.7	43.8	51.4	38.6	29.9
기관 내외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협력 확대	25.6	24.7	26.4	26.3	20.0	25.0	25.7	21.2	34.3
ODA 사업대상 국가의 양성평등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18.1	19.1	17.3	17.3	13.3	6.3	28.6	18.9	16.4
제도적 기반 마련	32.7	31.5	33.6	32.3	40.0	18.8	37.1	29.5	38.8
기관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9.0	6.7	10.9	11.3	0.0	18.8	0.0	10.6	6.0
소속기관 고위급 의사결정자의 관심	17.1	16.9	17.3	21.1	6.7	12.5	8.6	15.9	19.4

출처 : 김은경 외 (2015), pp. 64-65에서 재구성.

역량강화와 제도적 기반이라는 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나, 이 두 가지가 시행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사실상 고위급의 관심이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이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가지에 대한 응답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요소로 역량강화나 제도적 기반마련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실무자들은 젠더 이슈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들의 업무와 젠더 이슈 간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둘째, 젠더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가 없는 가운데, 젠더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스스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5. 결론 : 한국의 성평등 ODA의 특징과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성평등 원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젠더마커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우선 규모에 있어서 OECD DAC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고, 젠더마커 2점 사업 보다는 1점 사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둘째,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농업/어업 분야에 성평등 원조사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ODA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원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젠더마커를 기입해야하는 ODA 담당 공무원들은 젠더 및 젠더마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수준이 낮아 젠더마커를 제대로 기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ODA 실무자들은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 및 집계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한국의 젠더마커 비율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젠더마커 분석 및 젠더마커가 표시된 9개 사례분석의 결과를 볼 때,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으로 체크된 젠더마커 1점 또는 2점 사업간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젠더마커를 입력하는 실무자들의 젠더에 대한 이해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젠더마커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젠더마커로 체크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젠더마커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 하는 것은 한국의 젠더마커 검토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는 젠더마커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0이라는 의미는 해당사업이 젠더와 관계없다는 것인데, 실제 공무원들은 0과 1 사이에서 어느 쪽에 기입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때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0으로 두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0이라는 숫자 역시 실무자들이 직접 기입해야하는 점수이다. 즉, 해당 실무자가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 0, 1, 2를 직접 기입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은 젠더마커 검토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담당 실무자들이 젠더 개념, 젠더마커의 정의, 젠더마커 0, 1, 2점의 차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되짚어볼 때, 한국 성평등 원조의 규모나 내용을 젠더마커로 측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처럼 실무자의 인식이 낮은 경우 젠더마커 1점과 2점의 차이라든가, 1점과 0점의 차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한계란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이 가지는 분야별 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젠더마커라는 공식적인 통계지표를 통해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수준이 측정되고 평가되어 왔지만, 한국의 경우 젠더마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은 ODA 주요 시행기관을 제외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원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며 특히 젠더의 개념, 젠더마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는 데 있다. 한국의 ODA 전달체계에서 ODA 담당 실무자들에게 젠더마커 관련 기초적 정보나 지식에 대한 교육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 부처의 경우 부서를 옮기는 보직이동으로 ODA 사업을 맡고 있는데 따른 폐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평등 ODA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ODA 담당 실무자가 젠더와 젠더마커 개념을 이해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2015). ODA의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 세종: 국무조정실.
- 권율 외(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세종: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2014). 2013 EDCF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
- 김은경 외(2014).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ODA 사업 평가 연구. 서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_____ 외(2015). 양성평등 ODA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은정·김진영(2011).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3). KOICA 성 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월드휴먼브리지(2013). 민간단체 사업평가/성과관리 분야 역량강화 프로
그램 결과 보고집 - 볼리비아 직업기술학교 사업평가. 서울: 지구촌나
눔운동,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5). 볼리비아 Sapahqui 지역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 중간 평가. 민간단체 사업평가/성과관리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 보고집 - 볼리비아 사파하끼지역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 사업평
가. 서울: 지구촌나눔운동,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2012). DR 콩고 농촌종합개발사업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3a).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 사전타당성조사, 형성조사 결과
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3b).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 사업 - 실시
협의 결과보고서(직업훈련분야).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4). 베트남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사업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5a).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5b).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 -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_____ 동부엔지니어링(2015). 세네갈 식수개발사업 PMC 용역 - 사업종료
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2015). 숫자로 보는 ODA 2015 세계 ODA 통계 자료집.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GIZ (2014). The Policy Makers System. GIZ.

Moser, C. & Moser, A.(2010). Gender mainstreaming since Beijing: A review
of success and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Gender and
Development, vol, 13:2 pp. 11-22.

OECD(2012).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Statistical Overview. Paris: OECD.

_____ (2015).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Donor
Charts. Paris: OECD.

OECD DAC(2013).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 Addendum
2, Annexes - modules D and E. Paris: OECD.

〈웹사이트〉

GIZ 홈페이지 참조, <http://www.giz.de>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 ODA 모니터링 시스템, <http://oda.edcfkorea.go.kr>

OECD <http://www.oecd.org>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n Korean Gender-related ODA with a standard of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Eun-Kyung, Kim* · Eun-Ha, Chang** · Jung-Soo, Kim***

The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hereinafter “gender marker”) indicates to what extent a development project pursues the objective of promot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nd girls and boys. It is defined as a purely statistical indicator that supplies important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While numerou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carry out ODA projects, however, practitioners lack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gender equality ODA and standards for evaluating their projects against gender mark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basic concepts and standards for gender mark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th Korean gender ODA, analyzes South Korea’s gender-related ODA in light of gender marker 1 and 2, and investigates South Korean practitioners’ awareness on the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this marker. Based on these analysis, this research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gender-related ODA.

Keywords :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gender equality, ODA, vocational training, water and sanitation, rural development

*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